



젊은 통장이 몰고 온 신바람 700살 느티나무도 춤을 춘다

■ 광주 남구 대지동 마을지기 송운근 통장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은 나주시와 경계에 있는 광주의 끝자락 시골 마을이다.

가을이면 봄에 뿌려둔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50여가구 80여명의 주민 대부분은 60세 이상 노인들로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 좋게 얘기하면 평화로운 농촌 마을, 달리 표현하면 노인들만 모여 사는 무기력하고 활기 없는 마을이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마을이 들쭉거리기 시작했다. 송운근(50)이라는 젊은 통장이 새로 부임하면 서다. 그는 “앞만 보고 살다가 어느날 문득 내가 나고 자란 마을이 활기가 없고 황폐해졌다는 걸 깨닫고 ‘내가 통장을 해서 마을을 한 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하촌마을에서 나고 자란 젊은 통장은 우선 집집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끌어 모아 회관에서 회의를 열더니 마을 대청소에 들어갔다. 곳곳에 방치됐던 쓰레기는 한데 모아 버렸고 누가 언제 벽에다 쓴 지 모를 낙서는 말끔히 지웠다. 집 담벼락과 창고 건물 벽에는 주민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넣었다.

어지럽던 마을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면서 주민들 마음도 덩달아 환해졌다.

마을 청소와 벽화 그리기가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은 마을 활동의 거점이었던 700살 묵은 당산나무 앞 회관으로 모여들었다. 농사일 외에 시간이 남으면 TV나 보던 노인들이 공동체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오늘은 뭐 재미난 일 없나’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 둘 모여든 것이다.

통장은 그런 주민들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했다. 풍물강사였다. 일요일 오후면 당산나무 주변에 선 서툰지만 북·장구 소리를 앞세워 신명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풍물이 싫은 노인들은 그림을 배웠다. 나이 지긋한 주민들에게 친숙한 ‘화투패’가 그림의 주요 모델이었다.

주민들 모두 늦게 배운 풍물놀이였지만 배우는 재미가 붙어서인지 채 2년도 안 돼 전국 동호인 국악대회에서 풍물부 2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시골마을 활기차게 바꿔보자”

작은 일 하나라도 어르신과 소통

놀던 땅엔 해바라기·수수 공동경작

풍물·미술 배워 상 받고 전시회도

공동체 재미 찾은 주민 활기 충전

웃음 소리 가득한 장수마을 탈바꿈

하루하루 틈나는 대로 마을회관에 모여 그린 대형(1m×50cm) 화투패 그림이 수십 점으로 쌓이자 주민들은 남구청, 동사무소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풍물을 배우고, 벽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든 비용은 마을 곳곳에 놓고 있던 땅에 해바라기·수수 등을 공동경작해 벌어들인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취미삼아 배운 풍물놀이·그림으로 상을 받고 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받다 보니 주민들 어깨도 으쓱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러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마을에는 곡소리 한 번 난 적 없었다. 돌아간 노인이 한 명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가운데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실려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주민도 없었다는 게 송 통장의 자랑이다. 주민 대부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일명 ‘장수 마을’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젊은 통장이 몰고 온 마을의 변화 과정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선 한 번도 큰 다툼이 일지 않았다. 미술교실, 풍물교실, 그림 전시회, 마을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 항상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불러 모아 먼저 소상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마을 부녀회장 박광자(69)씨는 “송 통장이 대단한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한 명의 주민이라도 소외됨 없이, 반대로 마을 주민 소수가 특별히 주목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라면서 “주민들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대함으로써 애초부터 불만과 다툼의 씨앗을 수 없게 만들고 마을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난 11일 광주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 통장 송운근(위)씨와 주민들이 신명나게 풍물을 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밥 한끼로 응원하고 고민 들어주다 내 삶 돌아보고 상생하는 법 배웠죠

■ 혼밥족과 식사 공유 ‘어울림스’ 백선엽씨

자신의 특기인 조리과 음식을 통해 세대간 소통을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광주청년’이 있다.

백선엽(24·호남대 조리학과과 3년)씨는 올해 초부터 ‘어울림스’라는 청년단체를 만들어 지역 청년과 아동, 어르신들과 음식을 매개로 소통하는 활동인 소셜다이닝(Social Dining)을 진행하고 있다.

소셜다이닝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와 취업준비 등 바쁜 일정에 쫓겨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또래 청년뿐 아니라 지역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 삶을 돌아보고 모든 세대가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상생’을 배워가고 있죠.”

백씨는 군대를 갔 전역한 지난 2015년 초 동네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만들어 나눠먹던 모임을 ‘어울림스’로 발전시켰다.

그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탓에 집에서 혼자 끼니를 챙겨 먹다 보니 친구들을 초청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먹었다”며 “혼자 식사를 하며 자칫 깊

지역 청년·아동·어르신 등과

음식으로 소통 소셜다이닝 진행

취업난 청년에 희망 불어넣는

‘청춘도시락’ 프로젝트 시작

대인동에 무료 ‘청춘행복식당’

“소통 범위 늘리고 지역 환원할 것”

은 고독감에 빠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해 모임을 확장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백씨는 어울림스를 조직한 뒤 가장 먼저 ‘청춘도시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취업난 등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역사회에 공유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다. 각자 사연을 받아 추천한 뒤 정성껏 만든 음식을 선물했다.

“저는 ‘음식’이 ‘소통’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금세 친해질 수 있죠. 그러면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광주청년센터 the 소 ‘청년도전사업’에 참가한 백씨는 지난달 광주 동구 대의동 ‘종로떡거리’에서

고시생과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청춘행복식당’을 열었다. 점심에는 불고기, 저녁에는 돈까스를 직접 만들어 무료로 제공했다. 대신 각자의 고민을 적어내는 설문지를 받았다.

백씨는 “밥 한끼가 누군가에게는 큰 응원이 될 수 있다”며 “든든한 한끼를 챙겨가는 대신 무거운 고민은 두고가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과의 소통을 넘어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점차 소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북구멘토지역아동센터에서 ‘건강한밥상, 푸드교실’을 열고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음식을 만들고 건강에 좋은 음식 등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 ‘월산동 어머니 경로당’을 찾아가 지역 어르신들과 서로 음식을 만들어 나눠먹기도 한다.

노인과 1인 가정이 많은 월산동에서 ‘청년의 요리와 어머니들의 노하우’가 어우러진 상품개발에도에도 욕심내고 있다.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사자리를 갖는 등 지역을 위해 환원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때론 음식을 만들고 나눠먹으면서 삶이 20kg가 넘게 찌어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음식’이, 밥 한끼가 누군가에게는 큰 응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의 고민은 나누면서 외로움도 덜 수 있다는 게 ‘함께하는 식사’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